









200년 동안 300번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  
미국의 범죄적 행각을 분석한다.

### 차례

#### 1. 들어가는 글 전쟁의 배경과 본질

- 미국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 2. 그들만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 ① 거주국의 식은 모로도 절리라.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본적 민족경제 실현의 원천 봉쇄

#### 3. 그들만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 ② 미국의 자유, 인권옹호 논리의 허구

- 폐권을 위해서라면 민족분쟁, 지역분쟁도 조장하라.

#### 4. 결론 이제 경찰국가의 자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 미 패권사를 단죄하는 외침

## 내전, 분쟁, 대규모 학살... 인류의 양심은 더 이상 미국을 용서하지 않는다

### 40년대

#### '반(反)파시스트 저항운동'을 반대하라 - 그리스 전쟁

"전후(제2차 세계대전) 다른 나라들은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하면서 미국 생신품을 수입하고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그것이 미국 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미 정책과 개인의 이러한 계획과 전망은 미국의 경제기반이 침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들의 개조를 수반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반파시스트 저항 운동'이었다.

그리스에서는 나치의 힘을 이어 영국군이 주둔했다. 그러나 영국은 부패한 경권을 강요. 그리스인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전후 사망률에 들어선 영국으로서는 이를 진압할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게 된 그리스 전쟁은 1600명의 목숨을 앗간 참혹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은 티도데상이었던 반나치 저항운동 세력을 대단수의 민족, 즉 노동자와 농민들이었으며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민을 가는 동안 그리스는 미국 투자기금과 그리스 산업가들의 손에 완전장악 되었다. 자국의 경제기반을 공고화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이 성공했던 것이다.

### 50년대

#### 아시아 폐권화장의 교두보를

#### 미련하라 - 한국전쟁

1950년대를 눈앞에 둔 시기에서 동북아 지역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물리과 공산당이 대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은 미국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불렸었다. 중국 대륙을 교두보로 소련을 견제하고 아시아 전역에 지배권을 확대하고자 했던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약장을 위해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해야 했던 미국에게 선택된 곳은 디아인난 한반도였다.

45년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에 직접 개입했던 미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전쟁에 개입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록을 고찰해보자.

'1951년 6월 미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 석상에서 유엔담당 국무차관보 히枢은 처음에는 '(북한의) 공격이 경고없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이미 경고를 받고 있었다는 것과 전쟁발발에 대한 준비가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 그

리고 유엔에 출제하기 위한 결의안이 미리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 등을 고백한 바 있다. (서울, 비자국전쟁)

미국이 한국전쟁의 필요성에 의해 긴장을 조성하고, 이미 전쟁을 위한 만贯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들은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하면서 미국 생신품을 수입하고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그것이 미국 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미 정부는 미군이 총부리를 끼우면서 미국의 조수 등 강의 도량에 학살당한 부녀자들의 주민이 줄어들어 있던 경공을 목격하고 "그 현장을 믿을수가 없었다"고 당시 보고 회상했다.(80년 3월 8일자 한겨레 신문)

이 회의 전 한양대교수는 저작 '베트남 전쟁'을 통해 '베트남 전쟁은 스페인 내전과 함께 한대사에서 인류의 양심을 시험한 두 전쟁'이라고 밝혔다.

오로지 대국민의 이데올리를 위해 당시

국민의 '자주'와 '생존'을 지향했던 베트남 전쟁은 인류의 양심'이 용서하지 않고, 결국 혐의론의 악화와 미국의 완전한 폐단이 되어버렸다.

(언론 및 학자분석: John Hassett and Hugh Lacey, Towards a Society That Serves Its People: The Intellectual Contribution of El Salvador's Murdered Jesui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2)

자인 미리 미술의 임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당시 미리 미술에 전통에 통달한 학자들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미국은 엘살바도르에 구주하고자 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그리고 크게 성취했다.

로마로 대주교가 예상했던 대로 농

민단체, 조합, 노동 등 민중단체들은

다시 생겨났다. 국민당 중 수만명이

핵심을 담았고, 백인 이상이 피난이

되면서 이전에는 민주주의 토대가

없었지만 이전에는 민주주의 토대가

□ 인배움터 애인전 강정구교수(동국대 사회학과) 강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문사회과학

## 민족적·민중적 학문 통해 역사의 주인으로

지난 18일(화) 우리학교 용인배움터에서는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정명' 주제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용인배움터 인문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애인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우리학교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정구 교수는 학제성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고민이 우선적으로 유통되는 학문으로, 이를 토대로 한 단계를 받아 그 학제성이 80년대 초기 거의 단절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 국사학이 현재상과 거리가 먼 사사각각의 실증만을 유연한 과학적 방법론이라 보고, 미군정과 오늘에 이르는 현대사의 사적 규명을 기피한 채 체제에 은종하는 전통을 거치면서 된 배경에는 그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족적 학문의 형성에 대한 긴박한 요구는 바로 우리의 역사상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한 강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제식민시대 민족의 현재적 요구에 충실했던 학문은 민족주의와 사회·문화·제국주의와 지향하고 유연한 과학적 방법론이라 보고, 미군정과 오늘에 이르는 현대사의 사적 규명을 기피한 채 체제에 은종하는 전통을 거치면서 된 배경에는 그것이 그의 설명이다.

민족적 학문의 형성에 대한 긴박한 요구는 바로 우리의 역사상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한

증 등의 형태로 나타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민족적 학문의 복원을 위해 그가 주장하는 것은 비판적 학문의 지향이다.

『탈신비화(De-mystification)』와 「기본법률학(Debuking)」의 이론에 대해 그는 "학문의 소임은 지금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버적 인식」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느 사회든 그 사상을 지배하는 집단은 사회가 문화되어 가는 방식에 대해 숨겨야 할 것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진실한 분석은 비판적 성향을 띠며 미련이며 또 과장적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폭로의 글처럼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 베링엄은 부모의 말을 인용해 비판적 학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사회는 80년대에 비로소 여간 광화 경관교체가 이루어지고, 금강산 방문이 가능화 정도로 금기와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랄 수 없었다. 그 대로 너무나도 많은 사회현상이 왜곡되고 또 진실이 양쪽에 가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수록 인문사회과학의 주요소인 탈 신비화가

정실히 요구되고 마련이라는 것이다. 강교수는 "이제 드러워진 장막을 걷어내고, 기막을 벗겨 풍물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문은 민족·민중지향성과 더불어 비판적 성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판적 학문을 위한 17가지 제언을 통해 강교수는 드러운 관점을 가질 것, 드러운 주제와의

논소주제의 극복할 것, 디비판적 인식을 항상 지지할 것, 시사고와 접근에서 페르노나

스적 발상을 할 것, 디양몽주의 사관을 배격할 것, 디양시양비판적이거나 산술평균화 분석에서 탈피할 것, 디이중화주의의 모순을 범하지 말 것, 디실증자료로 행신주의를 극복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견지하는 것이 비판적 학문의 출발점임을 설명했다.

강정구 교수는 진정 올바른 학문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당부의 메세지를 던졌다.

"역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한동현은 전국 8개 지역조직, 1개 특별지구조직, 총 26개 지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동현의 회원구성은 유니언샵(Union shop)제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검신 기자

## 지난 20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전원석방 위한 대토론회 열려

지난 20일(목) 부산대학교에서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민권대위 '국민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학책'과 함께 한총련은 민족·민중지향성과 더불어 비판적 성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총련은 민주주의의 선구자이다.

(민권대위)

과연 한총련은 이적단체인가? 이적단체라니 어떤 점을 이용하는 단체인가? 그것은 북한을 기리면서 하는 것이다. 그들에 이 북한은 노대우 경권부부 등, 민족의 동반자 또는 통일의 상대방, 또는 남북이 본분의 차에 의해 나와 나의 관계가 아닌 민족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특수한 관계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남북기본인의 서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적일 수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남북기본인의 서를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통일정책을 기초으로 삽

는다고 했음에도, 북한을 적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한총련을 이적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밀법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모순이나 아니할 수 없다.

"지주적 대동조직" 역시 시민자치의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을 계승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루어한다.

"민족이 주인되어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학원의 자주화를 실현한다"는 내용 등이 중심인 한총련 강령을 살펴보면 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논리는 어떤

가.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족족인가?

작년 8월 대회 당시, 한총련은 서을대

에서 통일행사를 할 때 둘레를 쓰지 않고

쇠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저자랑 비폭력

투쟁은 학생들은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줄이 된다. 이

것이나 한총련은 학생을 스스로의 힘과

의사형제에 의해 자주적 조직 운영되는 조직

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

는가?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폐

포부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학생들은

이적



대학문화, 너를 말한다

# 코카콜라와 815콜라의 차이는 없다



&lt;1&gt; 코카콜라와 815콜라의 차이는 없다

95년의 대학기 과연 '대학문화'는 존재하는가?

거미줄처럼 우리 일상을 읽어에는 자신의 '길'으로 인해 실상 대학문화와 대학문화의 경계지역이 모호해진 이 때 그로 우리는 대안적 측면으로 대학문화를 이해하기도 한다. 탐구대학은 다른 아는 대내외의 교수·직원·학생 3주제이다.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진행했던 학내호수를 둘러보며 우리 대학의 대학문화가 나이기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자 한다.

편집자

"후배가 강단에 피는 모습을 본 선배는 담뱃갑을 풀고 펠트니 그대로 손 안에서 구겨버린다. 구겨진 담뱃갑을 신경질적으로 땅바닥에 내팽개치고는 후배에게 미구 유희를 해댄다. 잠시 후 선배는 88한길을 사 와서 후배에게 건네낸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별로 현실성 있는 그림이다. 어떤 상황인지 연뜻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다. 아마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6~7년전만해도 학교 안에서 종종 벌어지던 일이었다. 그 선배는 아마도 수입개방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민하는 대로 능률의 경험을 섞어가며 암담때 때문에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다죽어간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즉, 우리 능률의 경계를 살피기 위하여 암암배를 피지 말고 국립남배를 파우하고 이기기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양대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콜라, 와인, 익류, 페스트 푸드 등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비슷비슷한 논쟁은 벌어지고 고민했던 경험이 있다. 커피, 토스트는 이제 왼 기호인가? 아니면 이제는 세계적으로 일반화 된 기호식품인가? 그것도 아니면 커피는 물을 비아 민족의 피와 땀인가? 그렇다면 커피는 맛심, 티는 815나 큐비콜라를 마시면 되는 것인가? 여기서는 위에서 표한 선배의 입장이나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한다.

침대의 도입은 '실리' '밸터'니 하는 외국

침대회사 돈만 벌게 해 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침대와 식탁의 도입은 우리의 전통적인

화식 생활을 무너지고 전형적인 서양의 일상 생활로 우리의 주거 환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

다. 식탁에서 식사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 식탁에

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되었다. 양반 디리로 밥상에서 밥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개켜서 이불장에 넣는 모습은 오히려 더 설득된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식습관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도 바뀐다.

예전에는 담배, 또는 첫집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커피샵도록드'는 커피'이라는 단어에 잠시 달렸기 때문이다. 커피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음료수나 차를 마시기 위해 가더라도 우리는 '커피나 한 잔 할까?'라고 물어볼 경우를 자주 본다. 커피가 온갖 미실거리로 대신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콜라에 대한 논쟁 역시 경제적으로 더기가 기보다는 문화적으로 더기어야 한다. 지금



어린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언어와 생활사업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적 변화의 원인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모르겠지만 미국의 모습과 유사한 행태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

문화가 변하면서 관련 산업이 변한다. 텔레비전이 유현하면 케이블이나 강자집업성이 점점 더 발달하고 좌식생활이 일상생활로 바뀌면서 침대, 식탁 이외에 많은 부분의 산업이 새로 등장하게 된다. 케이블이나 강자집업을 오래전부터 먹여 줬던 미국 기업들이 더 잘 만들고 잘 팔고 잘 먹는 것은 당연하다.

오래전부터 입식 생활을 해온 외국 사람들 이 입식생활에 따른 생활사업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콜라 한두 캔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문화를 대중의 취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선이다. 돈버는 것은 사람들의 입맛을 한정해 버려 놓은 다음 깔끔히 끊어 모으기만 하면 된다.

예전에는 서구 열강에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선조들을 먼저 들어보냈다. 지금은 무엇이 먼저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가?

## 이 문희

&lt;사회·신문 4. 서울매일신문·문예갈채협의회 의장&gt;

## 이 광주

&lt;사회·행정 2. 우리말연구회 회장&gt;

영상제 소개 - 독립영화 축제 인디포럼 99

## '금기'에의 도전은 계속된다

인디포럼 99 작가회의에서 주최하는 독립영화 상영제 '인디포럼 99'가 지난 21일(금)부터 30일(일)까지 10일간 아트선센터에서 열린다. 독립영화에 대한 비평적 공감을 확산시키고 발전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95년 시작돼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97년 2회 행사 때 사전 심사 문제로 무산된 뒤 하는 등 순연하지 만은 않은 경력을 지니고 있다. 올해는 '독립영화 재창설'이라는 가치를 내걸었는데 이는 변화된 독립영화계의 환경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논의하고 보는 의미라고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작으로 상영된 '아쿠아 레쉬워' (장재재) 와 국영화, 드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총 70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국영화에서는 '평생의 노년' (최우진) '고추 말리기' (정희선) 와 38편, 애니메이션 부문에는 '일어나면 우주' (정승원) '도끼' 등 평범하고 어릴 때 써았던 '벽장' (정운진) 등 10편과 흥행 드립영화 작품 4편도 선보인다.



답 간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등장 문제를 다룬 '동강은 흐른다' (김상환), 제일교고 3세 문제를 다룬 '입국고지' (박영미) 와 12편이 상영되는 드큐멘터리 부문은 최근 불거진 사회문제를 다룬다.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인디포럼 99 작가회의의 김노경(사무국장,

28)씨는 "이번 행사는 '심의면제추천'을 신

청해 놓았으나 '심의'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독립영화의 다양화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는 매일 낮 12시부터 상영되며 주말에는 심야 상영도 있다.

문의 517-6003

장서운 기자

## 만화동아리 '해갈'의 정기 전시회

지난 17일(금)부터 21일(금)까지 6일간 미네랄로비 전시실에서 만화동아리 '해갈'의 정기 전시회가 열렸다. 자유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돼지 죽다' '미녀나라 나라서리' '빛풀은 개설구' 등 극작·스토리·작품 7점과 일리스트 14점이 전시되었다. 그 중 극작 '돼지 죽다'는 한 돼지가 시궁창을 벗어나기 위해 헌신한 길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내용으로 삶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인간 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최근 도성 용암·법학 4군은 '행사 지원비'가 적고 준비 기간이 짧아 민관과 같은 여러 민화 형식을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 합창단, 봄 정기 발표회 개최

합창단의 앞두었던 정기 발표회 HARMONIA MAY'가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금) 대강당에서 열렸다. 영화 '개미' 와 삽입곡 'Almost like being in love', 기타 '남촌' 등 합창·창작곡 총 14곡을 선보인 이번 행사는 신

## 문화단신

## 용인

## '미스터 피스' 이어 작은 음악회 열어

고전음악 동아리 '미스터 피스'의 여섯 번째 작은 음악회가 오는 31일(월) 5시 30분 교양관 앞마당 무대에서 교양관 휴게실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소프라노의 월츠 '7번, 10번', 베즈의 호수 중 '백조의 춤' 등 고전음악과 케니 G의 'Miracle', 영국 악주의 'Good-bye' 쉬리의 'When I dream' 등 영화음악과 같은 작품을 선보인다. 회장 신왕호(자연·물리 3)군은 "직접 관객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의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그림사랑'의 정기 전시회

오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민화동아리 '그림사랑'이 혜성관 전시실에서 스물 한 번째 정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련의 작품을 바탕으로 전시회에서 아름다운 작품, 민원, 원고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는데 그 중 만화부문은 학교 시설의 문제점, 시사문제를 풀어내는 작품을 전시한다. 행사를 준비한 정향운군은, "단원 애니메이션 저변을 넓힐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 드디어 외대에 스타크래프트대회가 열린다

## 대학일자

1999년 6월 1일(화) ~ 3일(목)

## 참가자격

한국 외국인 대학교 혹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휴학, 풀업생 포함). 단, 추후에도 본교 학생분이 아님이 확인되면 모든 시상을 박탈합니다.

## 개인부문

StarCraft brood war(Expansion)으로 합니다. 종족선택은 자유입니다.  
 3:3 팀플레이, macte, 토너먼트 방식입니다(이문, 원신 각각 진행후 결승전).

예선전의 몇몇 불리지역에서 공식 오리지널 헌터스맵입니다.

## 팀부문

1등팀 : 30만원, 개인방 90시간(20만천원)무료이용권  
 2등팀 : 20만원, 개인방 60시간(10만원)무료이용권  
 3등팀 : 20만원, 개인방 30시간(40만천원)무료이용권  
 여성 포함 최우수팀 : 개인방, 개인방 15시간(20만천원)무료이용권  
(무료) 이용권은 타인 양도 불가. 일정순위 이상한에게 빼지지 않음

## 선정 접수

5월 25일(화) ~ 30일(일) 자정 접수처, 대회 접기비는 현장 100원  
(모든 접기비에 게임방 1시간 무료 이용권 포함)

더 자세한 내용은 대자보를 참고하세요.

## 최근 대기 위한 해나 혁신독립여대와 역동 불어과가 함께하는 2회 보불제

## 문화제(26일) ~ 학교회관 앞에서 5시부터 공연

· 독일여대와 인연하이트(Enheit), 불어과 R resonance  
 · 불어과 신관극, 독일여대 풀리피아 풍물과 공연  
 · 초청: 스키티나비아와 Tillsammons 공연

## 개인행사(27일) ~ 대운동장, 즉구장, 농구장 12시부터

· 축구/농구/즉구/백파구

## 문화제(26일, 27일) ~ 학교회관 앞 8시부터 공연

· 26일- 경력과 개인: 양평북·니카타·미리아부리온의 결혼  
 · 27일- 방언: 부기(Eloir)·웨이드인 흥정·증오

## 개인전(26일, 27일) ~ 본관 일 서대기념관, 상설

· 프랑스, 독일 음식전, 기념 버튼 판매  
 · 베를린 영화제, 끝나 영화제 일기  
 · 비디 페인팅

## 주제(26일, 27일) ~ 학교회관 앞 8시부터

· 교보·화보·책·디자인 30만원  
 · 교보·화보·책·디자인 30만원

## 개인전(26일, 27일) ~ 학교회관 앞 8시부터

· 교보·화보·책·디자인 30만원

## 개인전(26일, 27일) ~ 학교회관 앞 8시부터

· 교보·화보·책·디자인 30만원

## FBS 가요제

언제? 5월 29일(수) 늦은 4시  
 어디서? 노천극장

누가오나? 아름다운 노래를 가진 대학생들  
 또? 조성모, 윤도현 벤드드라마

와우! 와우! 와우!

## 점점 거세지는 ‘미국반대’의 목소리

지난 22일(토) ‘반미의 날’ 기념집회, 미국의 경제침탈·전쟁책동·내정간섭 반대 주장

“19년 전 오늘 부산 앞 바다에는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진주했다. 그리고 며칠 후 광주는 블랙 피켓으로 변했고, 수천의 광주 국제시민들이 이 나라의 군인들에 의해 무리 징벌을 당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은 침략자이며, 동제경권을 지원하고 이 땅의 민족을 침착하는 제국주의의 밝혀진 이념을 ‘반미의 날’로 정하고 우리는 투쟁하고 있다.”

지난 22일(토) 빈미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는 '정쟁핵동, 경제침탈, 내장간섭 미국반대  
민족자주권 행진을 위한 민족대회(민족대회)'  
가 조국통일민족연합(민족련)을 비롯한 통  
일단체 관계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  
연), 청년·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전쟁책동, 경제침탈  
한국과 조국의 자주, 평화정의 비상대책위원회  
의 주최로 열린 이번 민족대회는 최근 극  
단적인 신사(신사)드라마<sup>1</sup> 구속, 한미군 조사조  
례를 비방으로 미국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여론마저 Nato<sup>2</sup> 전장 형세 등 한반도를  
제작한 미일의 전쟁제작들이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있다. 시점에서 외세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을 폐기하고 조국평화를 이루는데 '민족자주'와  
'평화'를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모아나가는 점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박병준 범민련 고문은 "우  
로부터 있다.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 또는 우리는 미국은 베이비hood, 두 고부가

미대사관을 향해 민족대회 참가자들은 소리높여 미국반대, 민족자주권 쟁취를 외쳤다.

## 한총련 이적부당 재확인

대구지법, '한총련 소속만으로 국보법 위반 아니다'

지난 21일(금) 대구지방법원은 “한국대학총동생회연합(한총연)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사법사상 처음

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기업 등) 증거력이 부족해 김씨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기각 및 반려 이유를 밝혀 국가보안법상에 의한 한총련 이적규정은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발부하거나 인적증명 등 단순 서류보완을 의미하는 ‘보정조치’를 내리는 것과 달리 영장을 ‘반려’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반려는 지난  
달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6기 한총련을 이  
단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되어있던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문제점  
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 것이며, 이는 국가보  
안 철학이나 학제적 저작권적인 철학이 주자

결과물과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과의 구조  
인 단정한 입증하는 선례가 잘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김태훈 판사는 한총  
장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구속된 대구·경북지역 대학 7기 한총장 대의  
를 14명 가운데 경북대 4학년 김도영의 혐장  
을 기각하고, 나머지 13명의 영장과 관련한  
판단은 검찰로 되돌려 보�였음을 알려졌다.  
김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국

민권공대위, 7·4공동성명 27돌  
남북공동행사 제안

지난 20일(목)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암십  
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광복  
회')는 북한 민족화해협력기구에 7·14공동문  
성명 27를 공동행사 및 이를 위한 준비회담의  
내용을 제의했다.

민권광복회는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기자회  
견을 통해 "지난 72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산

4대 종교 성직자 1080명 인권선언  
국가보안법철폐 강력주장

지난 19일(수) 4대 종교계(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성직자 10800명은 조계종에서 개최된 '제1회 불교종단·문화체육'를 통해 '종교계 10800' 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종교계들은 인권선언문을 통해 "50년간 종교계에 통과 국적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은 수백명의 양심수기 인간극장을 살피의권을 절박당한 채 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강조하면서 규탄했다.

특히 종교인사들은 "번민족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해야 우리사회와 국민의 인권신장과 막는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기망에 지나지 않는다. 21세기 풍물의 희망에 맞아야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짐작하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懦弱'이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강력히 힘들 것이다".

이밖에도 인권선언문에는 명실상부한 인권 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창설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환자를 볼모로 한 구조조정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눈물로 눈세우고 있다. 임부로서 환자를 고용하는지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는가? 디아이 삼성 불상겠다. 빨리 과장을 풀고 정상화하라!” 환자, 보호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 환자, 보호자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자 저희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괴물들이 남아나니. 저희들은 빨리 교섭이 알려서 의견을 좁히고 협상을 타결하여 과장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영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은 병원장 이하 행정원들은 지금과 단 한 번도 실험하고 교섭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섭을 회피하고 과장을 조작하는 자,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만하는 자 과연 누구입니까?”

다. 수술건수도 늘어야 하고, 하지 않아도 될 힘 정도로 하야 하고 환자들이 비판을 앓을 쓰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벌어지는 말든 환자를 상대로 듣는 단면 그들이하는 눈치(?)이며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구조조정안에 맞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그간 노조측은 6.2% 임금인상안과 인력보충(현재 명예퇴직, 인력감축으로 80여 명의 인원이 줄어든 상태) 등의 요구안을 제출한 바. 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협회에 입제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삭감과 단체협약안 개악의 내용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권익은 강제로 전쟁 중인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함께 노동자들 간의 차별화

지난 12일(수)부터 시작된 원자력병원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원자력 병원 측은 122명 친리해고, 70명 급습삭감, 연봉 제, 계약제 등의 단체협약 내용을 제시 했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간에 합의했던 42개조항을 명시 무시한 것임 뿐 아니라, 성과급제와 연봉제 도입 자체가 의사표시와의 접근을 저해 하려고 하 않은 채 환자들을 몯cznie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1일(금) 원자력병원의 흥업과 현장에서 진행된 '경보보건의료노동자들의 결의 대회' 자리에서 만난 원자력병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성과급제와 연봉제가 도입되면 직원들은 실력을 더 많이 유틸리, 수입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 경쟁해야 한

고로, 경비대와 경비대에 남은 물건이 나타났다. 이에 보통인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현재 긴박해진 경영은 기부과를 통해 노조를 박살내서리로 경영재구조,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구조조정 지침을 끌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노간조간 물건을 구속하고 수색하고 광권력을 투입해서 진압하는 단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리의 투쟁은 업여파 및 멸시를 없앨 것이고 단압과 압박을 사리지게 만들 것이다. 비인간적이고 모든 것을 쓰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투쟁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위대한 투쟁이다." 결의문에서 밝힌 경보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입장은 비단 그들만의 의지를 넘어서 것이다.

김경신 기자

• 티 • 래 <3>

-이동원-



아전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폭암정련과 나팔수, 제도언론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자네, 튼튼한가?

회려하지 않아도 속이 꽉찬 사람, 드러내진 않지만 자신에 찬 사람 –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부화재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IMF가 터지고보니 겉만 번지르르하던 기업들이 우수수~ 구조조정이다, 명예퇴직이다 하면서 직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 고를 땐 풀통한 기업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최초로 자동차 보험을 만든 창의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  
동부화재라면 걱정없습니다.

## 청년실업, 우리는 IMF반대를 외칠 수 밖에 없다

외대 졸업생, 이렇게 살고 있다.

**“힘들다. 장기전을 각오할 수 밖에”**

대학이상 고학력자들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IMF 이후 19.5%에서 19.9%로 높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고용형태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연공서열식 구조가 부리길었던 IMF전만 해도 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81.2%로 달렸고, 파트타임, 비정규직의 비중이 18.8%였으나 IMF 이후 정규직이 57.7%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42.3%로 늘어났다.(5월 13일자 한겨레 신문)

대학자 취업의 어려운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통계다. IMF 이후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교수들은 과연 현재 어떻�建 희망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여보았다.

편집자

올해 2월 우리학교 신방을 출입하고 현재 언론사협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창원군, 10대 일간지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문사에서 공고하고는 때마다 시험을 봐요. 하지만 벌써 5번 정도 시험을 치뤄본 경험이 있으구요.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다.

“당장 집안 상황이 힘들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저야 물론 출입했고 집에서 움도니 나오니까 취업공부하는 사람처럼 어려운 편

이죠...”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출입생의 위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일단 취업준비를 시작하면서 경기장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서 어려움을 겪으면 취직시기 공부비 저 힘들다는 것이 솔직히 설명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당장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어떻거든 출판 기구를 구하고 해요.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출판취직자마저 취업을 하려면 좋은 자리를 찾긴 힘들고.” 좋은 자리의 기준은 무엇인가고 묻자 손군은 해설단회에게 이야기했다.

“솔직히 외대 출입해서 취직하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든’ 취업은 해요. 하지만 말로만 순순히 헛기운으로 대학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4년동안 배운 것들을 사회에 나서 펼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일단 취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맨생들은 내보내보니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데 이내에 자기직성과 전혀 맞지 않거나, 거의 노기거나 수준의 단순노동만 하는 직장이라면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손군의 충신태인 신방과 92회 출입생의 경우 출입 당시 70~7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2·3월을 기점으로 자신에서 직장을 나온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고 한

다. 손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한 취업률 자체가 “거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로 나온다는 현실에 직면한 분들들엔 제 얘기가 대부분 소리로 들릴 것 같아 말하는데 많이 조심스러워요. 바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해야하는 모순된 현실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라고 기록에 반문한다.

도서관에서 민간 출입생 중 절반 이상은 국가부처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청장등에게 따로 물어 볼 때, 행정, 외교부와 차기 응시생은 모두 3만 8,277명. 여기에 기술고시, 군법무, 법원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응시생을 합하면 5만 5,000여명에 달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IMF 이후 고시생이 부쩍 늘었으며, 전체 수험생이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교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우리학교 고급출판 주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는 만번이나 취직원 대부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찾는 것은 쉽지 않아졌다. 일요일 밤(밤자 23일), 도서관 휴게실에서 만난 김모(법·법학 92회 출입)은 “취업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실이더라도 당

연히 자기는 그렇지 않고 얘기하는 대부분 분이죠. 원래부터 이후에 뜻이 있다고 얘기하지.”라며 웃는다. 그는 외무고시를 준비하면서 도종 목표를 낮추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IMF 이후 집안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을 봉사했고, 더 안정된 직장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어려거니와 진짜로 해보기 걸작 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동향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끈다.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학원이나면서 열심히 암기공부하고 있다니나봐요. 우리대학은 나의 제학원이죠. 우리대학 출입생 정도 나아야 벌써 취업자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제와 실업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으며, 특히 지금 같은 경기침체는 경제적으로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군포의 생각이다. “지금 경제위기는 그동안 쓰여온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폭발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경제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려면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경신 기자



청년실업, 대책은 무엇인가

**민중중심의 전면적 사회구조조정으로**

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일정 취업재수생들이 4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재벌, 언론은 “오직 실력양성인이 대인이다.” 혹은 “현실과 맞는 둘째는 둘째” 등 생활에 생각없고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출 실업자의 문제는 결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히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세운 미국의 경제신 턱통치는 우리에게 참담한 고훈을 안겨주었다.

한 나라 경제의 기본부�인 자립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둘리지 않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 일의 험경경제를 도맡아왔던 한국경제는 심각한 경영유착과 경제독재에 대한 온갖 특혜와 자본집중을 낳은 반면 대다수 민중들의 삶을 상

대적으로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어갔던 과정을 밟아왔다.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는 이렇게 자립적 토대가 하락하고 혼란스러운 한국경제의 필연적 결과와 동시에 일방적인 금융 및 노동시장 개방과 기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외세의 본질을 드러낸 결과물이었다.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외세의 간섭에 따른 분권체제에서 기인한 한국의 외세의존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침략적 압박에 있다.

을 초보부터 더욱 강하게 진행되며 시작한 민중들의 자발적 투쟁은 점점 긴밀화되는 사회 대체국적 본질을 폭로, 규탄하고 한반도를 자유로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면적 사회구조조정일 것이다.

에서 임종피되었듯이 사회적 모순이 극대화되었을 때 민중들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으로 모아진다.

현제의 국면은 현 정권 반대와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햇을때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윤연직원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내부의 민족부는 민족들이 주인이 되어한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 청산과 미국의 내전간섭 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부이다.

진정한 구조조정이란 효율성이란 미명아래 정리해고 중심으로 민중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미국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면적 사회구조조정일 것이다.

이상준  
(민관공대원회 집행위원장)**'99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기본교육훈련**

‘99년도 우리대학교 경제직예비군 기본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 학생예비군은 학과(대학원생은 각 대학원) 계시관에서 본인의 훈련 일자로 반드시 확인하고 무학령 경우 미상제학원(예비군 본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바랍니다.

## 1. 대학(대학원)학과별 교육일정

날짜	교과	교과 대상 학과	총 학과
5월(2주)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원, 대학원대학원, 문화대학원, 예술대학원	국제화재무학과	국제화재무학과
6월(2주)	아시아대학원, 대법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국제화재무학과	국제화재무학과
7월(2주)	법대학원, 문화대학원, 경영대학원	국제화재무학과	국제화재무학과
8월(2주)	법대학원, 대법대학원,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문화대학원, 예술대학원	국제화재무학과	국제화재무학과
9월(2주)	국제화재무학과	국제화재무학과	국제화재무학과

## 2. 교육대상

소집일정(4시간) → 장교, 하사관, 병(일반하사 포함) 1년차(‘98년도 전역자)

기본교육(8시간) → 장교, 하사관, 병(일반하사 포함) 2~7년차 (‘92~‘97년도 전역자)

## 3. 교육훈련 제외대상자

가. ‘96년도 전역예비군  
나. ‘99년도 주민등록증에서 8시간이상 교육을 필하고 기타 보충교육 훈련에 불참자

다. 전역8년차 이상(장교, 정·단기기, 병) 학생예비군

## 4. 유의사항

가. 대학(대학원)학과별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일정을 정확히 숙지할 것.

1999. 5.

서울캠퍼스 직장 예비군 연 대 장

**1999학년도 학제 계획학기 개설예정**

## 교과목 및 수강신청·등록 일정

## 1. 개설예정 과목

구분	과목 제목	과목 번호	학점(학기)	평일 시간	비고
교양	인문학	5401	3(2)	1~2(3)	
	인문학	5451	3(2)	5~6(3)	1교시 08:00~09:40
	인문학	5461	3(2)	5~6(3)	2교시 10:50~12:30
	인문학	5441	3(2)	7~8(3)	
미술대학	미술대학	5801	3(2)	1~2(3)	
	미술대학	5821	3(2)	3~4(3)	
	미술대학	5831	3(2)	3~4(3)	
	미술대학	584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5911	3(2)	2~3(3)	
	한국대학원	5921	3(2)	5~6(3)	
	한국대학원	5931	3(2)	5~6(3)	
	한국대학원	594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5951	3(2)	2~3(3)	
	한국대학원	5961	3(2)	3~4(3)	
	한국대학원	5971	3(2)	3~4(3)	
	한국대학원	5981	3(2)	5~6(3)	
	한국대학원	599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001	3(2)	2~3(3)	
	한국대학원	6011	3(2)	3~4(3)	
	한국대학원	6021	3(2)	5~6(3)	
	한국대학원	603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041	3(2)	2~3(3)	
	한국대학원	6051	3(2)	3~4(3)	
	한국대학원	6061	3(2)	5~6(3)	
	한국대학원	607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081	3(2)	2~3(3)	
	한국대학원	6091	3(2)	3~4(3)	
	한국대학원	6101	3(2)	5~6(3)	
	한국대학원	611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121	3(2)	2~3(3)	
	한국대학원	6131	3(2)	3~4(3)	
	한국대학원	6141	3(2)	5~6(3)	
	한국대학원	615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161	3(2)	2~3(3)	
	한국대학원	6171	3(2)	3~4(3)	
	한국대학원	6181	3(2)	5~6(3)	
	한국대학원	619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201	3(2)	2~3(3)	
	한국대학원	6211	3(2)	3~4(3)	
	한국대학원	6221	3(2)	5~6(3)	
	한국대학원	623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241	3(2)	2~3(3)	
	한국대학원	6251	3(2)	3~4(3)	
	한국대학원	6261	3(2)	5~6(3)	
	한국대학원	627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281	3(2)	2~3(3)	
	한국대학원	6291	3(2)	3~4(3)	
	한국대학원	6301	3(2)	5~6(3)	
	한국대학원	631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321	3(2)	2~3(3)	
	한국대학원	6331	3(2)	3~4(3)	
	한국대학원	6341	3(2)	5~6(3)	
	한국대학원	635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361	3(2)	2~3(3)	
	한국대학원	6371	3(2)	3~4(3)	
	한국대학원	6381	3(2)	5~6(3)	
	한국대학원	639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401	3(2)	2~3(3)	
	한국대학원	6411	3(2)	3~4(3)	
	한국대학원	6421	3(2)	5~6(3)	
	한국대학원	643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441	3(2)	2~3(3)	
	한국대학원	6451	3(2)	3~4(3)	
	한국대학원	6461	3(2)	5~6(3)	
	한국대학원	647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481	3(2)	2~3(3)	
	한국대학원	6491	3(2)	3~4(3)	
	한국대학원	6501	3(2)	5~6(3)	
	한국대학원	651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521	3(2)	2~3(3)	
	한국대학원	6531	3(2)	3~4(3)	
	한국대학원	6541	3(2)	5~6(3)	
	한국대학원	655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561	3(2)	2~3(3)	
	한국대학원	6571	3(2)	3~4(3)	
	한국대학원	6581	3(2)	5~6(3)	
	한국대학원	659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601	3(2)	2~3(3)	
	한국대학원	6611	3(2)	3~4(3)	
	한국대학원	6621	3(2)	5~6(3)	
	한국대학원	663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641	3(2)	2~3(3)	
	한국대학원	6651	3(2)	3~4(3)	
	한국대학원	6661	3(2)	5~6(3)	
	한국대학원	667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681	3(2)	2~3(3)	
	한국대학원	6691	3(2)	3~4(3)	
	한국대학원	6701	3(2)	5~6(3)	
	한국대학원	671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721	3(2)	2~3(3)	
	한국대학원	6731	3(2)	3~4(3)	
	한국대학원	6741	3(2)	5~6(3)	
	한국대학원	675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761	3(2)	2~3(3)	
	한국대학원	6771	3(2)	3~4(3)	
	한국대학원	6781	3(2)	5~6(3)	
	한국대학원	679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801	3(2)	2~3(3)	
	한국대학원	6811	3(2)	3~4(3)	
	한국대학원	6821	3(2)	5~6(3)	
	한국대학원	683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841	3(2)	2~3(3)	
	한국대학원	6851	3(2)	3~4(3)	
	한국대학원	6861	3(2)	5~6(3)	
	한국대학원	687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881	3(2)	2~3(3)	
	한국대학원	6891	3(2)	3~4(3)	
	한국대학원	6901	3(2)	5~6(3)	
	한국대학원	691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921	3(2)	2~3(3)	
	한국대학원	6931	3(2)	3~4(3)	
	한국대학원	6941	3(2)	5~6(3)	
	한국대학원	6951	3(2)	7~8(3)	
한국대학원	한국대학원	6961	3(2)	2~3(3)	
	한국대학원	6971	3(2)	3~4(3)	
	한국대학원	6981	3(2		





서평- 히라노 게이치로의 '일식'을 읽고

# 천만에, 세기말 문학은 부활한다!

출판계에서 불운처럼 떠도는 이야 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은 TV로 선전하고 맹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정 크스가 경제적으로 어떤 힘수 관계를 갖고 있고, 시장에서 어떻게 소구되거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한다고 하는, 다른 한 편은 예술적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나 나름의 경험에 의하면 해답은 간단하다. 책은 자신의 힘으로 살나마아이지, 결코 TV 광고 키피 따위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것이다. 그것은 경제학이나 광고학의 문제에 앞서 한 권의 책이 갖는 정치적, 즉 윤리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3세 대학생으로 일본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루타 가와상 수상, 일본은 지금 히라노 열 풍 등의 선전구호로 화려하게 히라노를 두른 이 책은 다분히 불실히 보인다. 개다가 권위있는 문학상의 부재로 더러운 이 소설에 대한 평가는 한국 문학계에 어느새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력까지 과고들었나를 생각해보면 지뢰감과 출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책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한 가지, 작품성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책을 펼쳐보자.

'일식'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부철학과 플라톤주의가

충돌하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의 프랑스이다. 당시를 죄자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전통의 기독교에 있어서, 유파와 엘리트론, 신과 인간 세계가 무한히 접근한 20세기 이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예외의 시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주류의 기독교와 비주류의 마니교, 이슬람교, 연금술과 이단 종교학을 함께 그려, 당시의 혼란했던 사상사상을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은 이러한 사상적 변화들에서 이 모든 사상의 통합을 통해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일원론적인 시각으로 대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 즉 신과 인간, 혹은 영과 육의 합일을 꿈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인생을 상징하는 사람에서 영적 진리로 표상되는 순금을 품어내는 연금술을 택한다.

우선 이 소설은 위의 간단한 소개만으로도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알 수 있는 만큼의 흡족한 풀꽃을 갖추고 있다. 작자가 구체여 16세기의 프랑스 사상사를 배경으로 꿈꾸었던 것은 바로 현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신파의 운동과 누아즈 사상의 대두로 세기말은 태양의 반대편을 향해 멀어져 가는 일식, 겉은 달의 그림자로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수천년간 속속들이 창작과 근본 문제였다. 늘 미리 포기할 것을 강요당한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도 해답에 대해선 의견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달을 그림자처럼 신성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려 하고 있다. 부연해 말하면 세기말의 사상적 흐



란함이 넘지 않는 질문은 인류의 존속에 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인간 실존에 대한 새로운 경의 문제임 것이다. 요컨대 과연 세기말의 인류는 다시 태양과 잠깐 동안 조우하는 현상이 태양의 반대로 풀꽃을 갖추고 있다. 작자가 구체여 16세기의 프랑스 사상사를 배경으로 꿈꾸었던 것은 바로 현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신파의 운동과 누아즈 사상의 대두로 세기말은 태양을 향해 멀어져 가는 일식, 겉은 달의 그림자로 지나가는 것이다. 이 극적인 묘사는 여타의 소설이 갖는 폐쇄성과 강박감에서 벗어나 이 소설은 한 단계 더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단지 이 소설이 키르카적인 상상력과 대답함에 한정된 문제라면 그것은 앞서 밝혔듯 이루타가와상의

문제일 뿐 리얼리즘 일색인 한국문단의 문제일 수 없다. 당연 우리는 이즈음에서 왜 일식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선 일식이라 무엇인가? 고대 비발로-나이언들은 일식을 신(神)의 현현(顯現)으로 생각하여 그 주술상에 기대어 제사를 지내고 점을 찾았다. 그러나 과학의 세계를 시는 우리에게 일식이란, 아인슈타인의 태양 중력장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관현의 대상일 뿐이다. 문학은 실증과 미천기자로 그 신비함과 주술성을 잊어버리고 상품사회에 적응하여 예술의 상품화, 인생의 예술화를 나눠내는 포스트모던주의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지금, 자신은 '죽을 지상주의자'임을 헛되이 밝히며 등장한 이 젊은 소설가는 분명 돈키호테적인 이다. 그러나 그가 다시 금 일식의 주술성을 빙어 문예부흥의 유혹을 가볍게 비웃으며, 젊은 태양이 하늘을 뛰밀을 때, 안드로기노스(양성 구유): 두 성이 한데에 결합 전인격적)의 회법특이는 몸뚱이리를 당당히 보여준 것이다. 이 극적인 묘사는 여타의 소설이 갖는 폐쇄성과 강박감에서 벗어나 이 소설은 한 단계 더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단지 이 소설이 키르카적인

김원  
(동양·중국어 4)



## 사진 수필

이제 더이상 대학은 진리탐구를 위한 지성의 징은 아닌 듯 싶다. 좋은 직장을 기자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닐까? 함께 하는 우리가 아닌 나누기기 위한 내가 되어야 하는 대학현상에 맞춰 순수학문인 인문학도 존재의미를 상실해 가는 듯하다. 인문학도에게도 외연을 당한채… 자, 인문학이며, 일어나리고 곳곳 한번 벌여보세.

- 지난 21일(금) 용인 배움터 협수당에서 제1회 예인전, 무속인과 함께하는 「대통령님과」에서 정호경 기자



영화 -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를 보고

## 지우고 싶은 기억의 단편

싼 표현이고, 그의 기억 속에 담겨진 성장은 소련인들이 겪었던 아픔이다. 영화는 아주 느리고 지루한 방식으로 관객의 시선을 바꾸어 준다. '벼르코프스키'의 영화처럼 소년을 풋아기는 카메라는 또 하나의 흠玷보기이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맛볼 수 있는 절정감이나 긴박감이 없다.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듯 조용하게 혹은 삶에 지쳐 세상을 살아가는 1940년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사람 각자의 세밀한 삶이 묘사되는 것도 아니라. '느티지바고'의 귀족적 융통감도 없다. 이제 이 영화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다.

스탈린이 집권한 1920년부터 소련의 공산주의 정책은 레닌이 말하던 이상적인 사회에서 비켜가기 시작하였다. 최고 권력기구를 비롯하여 스스로를 신성시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파시즘의 변종으로 말할 정도로 일인 권력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소련의 점총적

인 변화는 곁으로는 공산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안은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기본주의보다 더한 경제적 빈곤 상태로 가버린다. 역사가 밟혀주듯 사회적 변화의 책임은 권력에게 물지 않고 모든 민중들이 감수하고 속으로 신하 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역사적 올분을 한이리라 말한다. 그렇다면 러시아인 또한 한을 느끼고 역사를 비난·보기로 기대하는 미래에는 임을한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것이다.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는 분명히 이러한 소련 역사의 아픔을 도러낸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이야기 한다. 나레이션은 도입부와 끝부분에 나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회상적인 요소를 설정하고, 1947년 탄생촌의 어느 마을로 돌아간다.

소년 '벌레르카'는 카메라를 들고가는 중심적인 인물

이고, 어쩜 알 수 없는 나레이션의 본분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명의 소녀가 등장한다. '갈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학생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벌레르카'의

점년까지 받아들이고, 그를 질책하기보다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가출한 '벌레르카'가 도둑들과 함께 보석상점 절 때도 소녀는 면길을 찾아 그를 만나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한다. '벌레르카'를 유일하게 믿고 그를 보살피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니다. 암울한 현실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소년의 꿈들에 '벌레르카'는 자신만의 믿음을 쌓고,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는 '갈리나'를 결제·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성되는 영화로 짐작하면서 스탈린주의 시대의 소년 현실을 표현해 준다.

소년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영화는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라고 여러 작품들이 있다. 그 중 '벌레르카'는 사회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외적 논리를 잘 못 풀치는 많은 국가들에 반성과 경고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자신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해 '벌레르카'는 말해준다.

김정영  
(자연·화학 4, 사월문학반)

인간의 기억이 행복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 기억의 색이 미묘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는 세탁에서 느끼듯 소련 국토지역에 어느 소년이 겪는 경험의 나날이고, 이미 성장한 어른에 기억의 색이다. 그러나 행복은 아주 깊이

자신의 고향이 낯선 곳으로 인식되고 무정부주의를 상상하듯 세상을 조종하는 그의 몸짓과 말을 통해 방향성을 상실한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 지켜주는 '갈리나'를 죽임으로써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한 풍물립을 것이다.

마음 사람들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자신의 모습을 지우기 위한 하나님의 빙림이었을 것이다. 죽음과 나라이선이 끌리는 지점에서 영화는 아픈 추억의 눈송이가 되어 펼어진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기억이 허러드 무렵 눈송이의 미움 안에 한창하게 풀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사消될 때 '벌레르카'가 뇌지않고 자신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감독이 들려주는 진잔한 이야기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잃어버린다. 싫은 이는 기억의 단편은 소녀의 죽음과 더불어 막을 내린다. 그리고 남아있는 어운, 앞으로 소년은 자신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꾸미는가? 20세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현재의 소년과 인간을 담보로 경제적 논리를 잘 못 풀치는 많은 국가들에 반성과 경고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자신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해 '벌레르카'는 말해준다.

## 그래, 끊고 죽자! ???

대동제는 술먹고 죽어보는 날?

그럴 수도 있죠.

차라리 그럴게 하도

대동제를 즐깁시다.

대신,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와 어우러져 보는 겁니다.

대동제 각 프로그램들이 갖는 내용도 관심있게 보면서요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대동제기간 서울배움터 : 24일(월) ~ 28일(금), 용인배움터 : 24일(월) ~ 27일(목), 교내 곳곳